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하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1. 12. 7.(화) 11:00	배포 일시	2021.	12. 7.(화) 09:00
담당 부서 <총괄>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u></u> 과장	김동은 (044-203-2461)
		담당자	사무관	조영권 (044-203-2464)

코로나 이후 선도하는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 개관

- 대중음악 공연 디지털 역량 강화, 한류 확산 핵심 콘텐츠로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선도 전략인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7일(화)에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코카(KOCCA) 뮤직 스튜디오]'을 개관한다.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중소기획사와 독립(인디)음악 공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한류 확산 핵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다. 콘진원은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 체육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림픽공원 '케이(K)-아트홀'을 새 단장해 지난 11월에 스튜디오를 완공했다.

가상 공연장, 실제와 똑같은 질감과 형태 재현, 실시간 연결 시 지연 현상 제거 등 최신 실감형 공연기술 구현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로서, 장비, 시설, 운영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일반 공연장과 차별화된다. 대면 관람을 위한 객석 대신 특수 효과 및 기술과 융합되는 가변적 무대, 공간 음향 장비, 인터넷 송출 시스템, 실감 공연을 위한 후반 작업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운영과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연장을 구현하는 '브이디움(VDIUM)' 기술, ▲ 가상공간에 실제와 똑같은 질감과 형태를 재현하는 '디지털 3차원(3D) 모델링' 기술, ▲ 실시간 온라인 연결 시 지연 현상을 제거하는 '싱크룸(SYNCROOM)' 기술, ▲ 온라인 관 객에게 현장감 있는 음악을 제공해줄 '실감 음향' 기술 등 다양한 실감 기술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콘진원은 지난 10월에 실감 공연 '온 더 케이(ON THE K) : 더 퍼스트 스테이지(THE FIRST STAGE)'를 열어 온라인 공연 콘텐츠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이고, '코카 뮤직 스튜디오'의 개관을 예고한 바 있다. 〈온 더 케이〉 기획 공연 시리즈는 12월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코카 뮤직 스튜디오'의 최첨단 실감 공연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2년부터 중소기획사와 창작자 대상 스튜디오 시설 기반 지원 사업 추진

아울러 문체부와 콘진원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온라인 공연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획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스튜디오시설을 기반으로 제작, 음악인(뮤지션), 대관 등 3개 부문을 지원하는사업을 추진한다. ▲ '제작지원'은 국내 케이팝 중소기획사들을 대상으로제작비와 스튜디오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 '음악인 지원'은 음악인을 대상으로 공연과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해외 진출, 홍보 행사까지 함께지원한다. 그 외에도 ▲ 잔여 일정 발생 시 '대관지원'을 통해 스튜디오 기반시설을 케이팝 중소기획사를 중심으로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매년 온라인 공연과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50개 이상을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문화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공연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케이팝 팬 등 음악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영상·음향을 갖춘 몰입감 있는 공연 체험을 선사해 온라인 케이팝 공연이 한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온라인 공연이 어려운 중소 연예기획사와 독립음악 공연 등을 지원해 신산업인 비대면 공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461)
<총괄>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권 (044-203-2464)
<공동>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원경덕 (044-203-3124)

